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[미국 경제]
- Bloomberg: 8월 미 민간 일자리 증가세 둔화… 고용시장 안정세 지속
- Bloomberg: 미국인 60% "나는 노동자 계층"으로 인식…대졸·고소득자도 포함
- Bloomberg: 뉴욕 연은 총재 "인플레 완화 중… 기준금리 현 수준 적정"
- WSJ: 끝나지 않은 전쟁 여파…연준 금리 정책 둘러싸고 갈등

[미국 금융]
- WSJ: 국채 매도가 어떻게 미 소비자에게 영향을 주나?
- CNBC: 미 10년물 국채 금리 연중 최고치 경신 …인플레와 부채 우려에

[물류]
- WSJ: 트럼프 행정부, 이민자 트럭 운전자 단속 강화… 물류비 인상

[뉴욕시]
- CNBC: 뉴욕시, 초·중등생 AI 기기 사용 제한

[중동 전쟁]
- CNBC: 미국, 이란의 보복에 추가 대응 타격… 확전 위험 고조

[오일]
- WSJ: 유가 상승, 글로벌 채권 시장의 불안감 부추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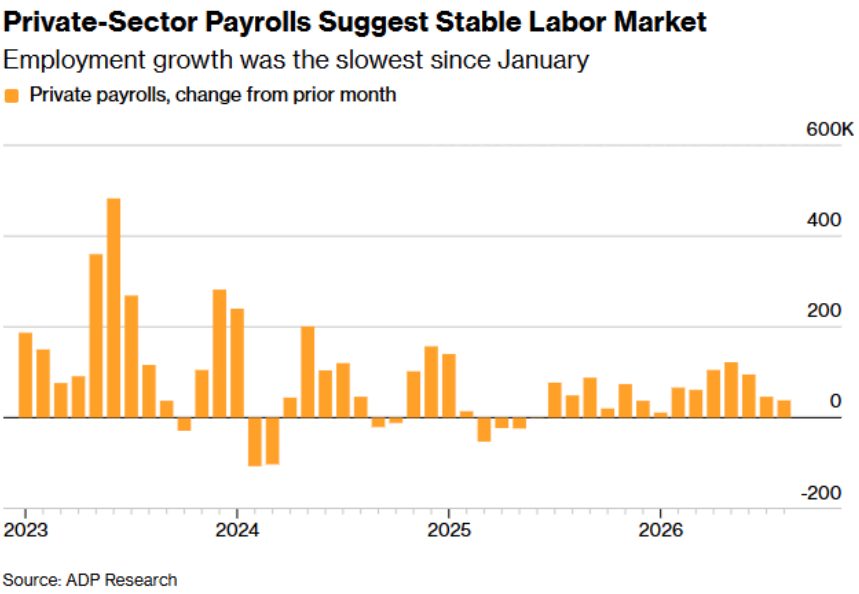
[주택]
- CNBC: 모기지 금리 계속 인상..30년은 6.79%

[오늘의 금융 지표]
- 미 증시 지수, 미국 국채 금리와 주요 환율

[미국 경제]

Bloomberg: US Companies Added 38,000 Jobs in August, ADP Data Show
8월 미 민간 일자리 증가세 둔화… 고용시장 안정세 지속

- 8월 미국 기업의 신규 일자리 창출 폭이 줄어들었으나 고용 시장이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. 해고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.
- 고용 관련 ADP의 오늘 수요일 발표에 따르면, 8월 민간 부문 고용은 3만 8,000건 증가하여 전월 기록(4만 6,000건, 수정치) 대비 감소했다.
- 이번 8월 고용 증가 폭은 올해 들어 가장 작은 규모를 기록했다. 업종별로는 교육 및 보건 서비스 부문이 가장 많이 일자리가 증가했으며 여가·숙박업과 건설업이 그 뒤를 이었다.



기사

Bloomberg: Most Americans Consider Themselves ‘Working Class,’ Pew Says
미국인 60% "나는 노동자 계층"으로 인식… 대졸·고소득자도 포함

- 관련 Pew Research Center조사 결과 미국 성인 60%가 자신을 '노동자 계층'으로 생각한다고 응답했다.
- 학위가 없는 성인과 중위 소득층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, 대졸자 절반 및 상위 소득층도 자신을 노동자 계층으로 간주하고 있다.
- 일반적으로 노동자 계층은 대학 학위가 없거나 블루칼라·서비스직 종사자를 뜻하는데 자신을 노동자 계층으로 여기는 비율은 54%였던 2년 전보다 늘어났다.

기사

Bloomberg: Fed’s Williams Says Inflation Continuing to Trend Down
뉴욕 연은 총재 "인플레 완화 중… 기준금리 현 수준 적정"

- John Williams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관세 영향이 줄어들면서 인플레 완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.
- 그는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지지하며, 현재 금리 수준이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중앙은행의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하기에 적절한 상태라고 밝혔다.
- 그는 이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여전히 관세와 높은 에너지 가격을 지목했다.

기사

WSJ: A War That Won’t End Is Complicating the Fed’s Next Move
끝나지 않은 전쟁 여파…연준 금리 정책 둘러싸고 갈등

- 연준 Michael Barr 이사는 최근 데이터에서 인플레이션 완화 징후가 보이지 않을 경우 이달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.

- 이와 관련 이란과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에너지 비용 상승세가 이어짐에 따라, 국채 금리는 유가와 함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.
- 반면에 연방 재무장관은 근원 인플레이션이 매우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, 연준이 공급 충격에 대응해 금리를 인상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. 금리 정책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.

기사

[금융]

WSJ: What Does a Bond Selloff Mean for American Consumers?
국채 매도가 어떻게 미 소비자에게 영향을 주나?

- 주택 시장 악화된다. 10년물 국채 금리와 연동되는 주택담보대출(모기지) 금리가 7%에 근접하며 구매력이 저하되고 있다.
- 자동차 구매 및 유지비 부담이 늘어난다. 할부 대출 금리가 증가하고 있다.
- 기업 자금 조달 및 증시 위축 위험과 관련해 금리 상승세가 지속되면 소비와 AI 투자 열풍을 뒷받침하던 주식 시장의 상승세가 꺾일 위험이다.
- 특히 단기 대출 금리 및 체감 물가가 상승한다. 시장 전반의 단기 차입 비용이 증가하고 소비자의 실질 생활비 부담이 커지게 된다.



기사

CNBC: 10-year U.S. Treasury yield hits highest level since November 2023
미 10년물 국채 금리 연중 최고치 경신 …인플레와 부채 우려에

- 인플레와 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 정부의 자금 조달 비용을 압박하면서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가 수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.
- 주택담보대출, 자동차 할부, 신용카드 대출 등의 주요 기준 지표가 되는 10년물 국채 금리는 4.79%를 기록했다. 장중 한때 4.814%까지 오르며 2023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.
- 30년물 국채 금리는 5.262%를 기록했으며, 2년물 국채 금리는 1 베이시스 포인트 이상 하락한 4.383%로 집계됐다.

SYMBOL	COMPANY	YIELD	CHANGE
US10Y	U.S. 10 Year Treasury	4.796%	UNCH
US1M	U.S. 1 Month Treasury	3.736%	-0.011
US1Y	U.S. 1 Year Treasury	4.169%	-0.011
US2Y	U.S. 2 Year Treasury	4.386%	-0.008
US30Y	U.S. 30 Year Treasury	5.268%	+0.001
US3M	U.S. 3 Month Treasury	3.872%	UNCH
US6M	U.S. 6 Month Treasury	4.028%	-0.006

기사

[물류]

WSJ: Trucking Crackdown Accelerates in U.S.
트럼프 행정부, 이민자 트럭 운전자 단속 강화… 물류비 인상

- 트럼프 행정부가 부적격 운전자를 적발하기 위해 전국 면허 데이터를 요구하며 이민자 트럭 운전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.
- 국토안보부와 교통부는 불법 체류 가능성이 있는 상업용 면허 보유자를 체포하고 일부 운전학원을 폐쇄 조치하고 있다. 부실 교육 3백곳의 운영을 중단했다.
- 이민 당국도 고속도로 단속을 통해 이민자 수백 명을 체포하면서 트럭 수송 능력이 축소되며 운송 운임이 상승하고 있다.

기사

[뉴욕시]

WSJ: NYC school system to ban AI for elementary, middle school students
뉴욕시, 초·중등생 AI 기기 사용 제한

- 뉴욕시 교육국은 만 2세부터 8학년 학생의 AI 사용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다.
- 이에 따라 유아반 및 초·중등학생 약 60만명(전체의 3분의 2)이 생성형 AI를 쓰지 못하게 된다.
- 새 가이드라인은 유치원 이전 과정(Pre-K)부터 2학년의 수업 중 개인 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. 또한 3~5학년은 하루 30분, 중학생은 45분으로 개인 기기 스크린 타임을 제한하도록 권고한다.

기사

[중동 전쟁]

CNBC: U.S. strikes Iran as Tehran retaliates, raising risk of wider war
미국, 이란의 보복에 추가 대응 타격… 확전 위험 고조

- 미군은 상업용 선박과 미군 인력에 대한 공격에 대응해 호르무즈 해협 일대의 이란 목표물을 향해 추가 타격을 감행했다.
- 이에 이란은 미군 시설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으로 보복을 시작했다고 밝혔다.
-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타격이 "대규모의 강력한 공격"이었다며 재보복 시 더 큰 공격을 가하겠다고 경고했다. 이번 작전은 이란의 레이더 및 미사일 전력 재건을 저지하기 위해 실행됐다는 것이다.

기사

[오일]

WSJ: Oil Prices Push Global Bond Market Closer to the Edge
유가 상승, 글로벌 채권 시장의 불안감 부추겨

- 미 재무장관이 G20 회의 주최와 함께 엔/달러 환율 관리, 장기 국채 금리 대응, 캐나다와의 무역 갈등 등 여러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, 최근 유가 급등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.
- 주요 선진국의 장기 채권 가격이 하락(금리 상승)세를 보이고 있다. 독일, 영국, 일본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각각 2011년, 2008년, 199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.
-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역시 약 0.04%포인트 상승하며 금융위기 이후 보기 드문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

기사

[주택]

CNBC: Demand for riskier mortgages rises along with interest rates
모기지 금리 계속 인상..30년은 6.79%

- 30년 미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계약 금리가 6.78%에서 6.79%로 상승했다.
- 5/1 하이브리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(ARM)의 평균 계약 금리는 5.94%로 하락했다. 여기서 5/1은 5년 동안은 금리가 고정적이며 1은 5년이 지난 후부터 시중 금리에 맞춰 대출 금리가 조정된다
- 이와 관련 모기지 재융자 신청 건수는 전주 대비 1% 감소했으며, 전년 동기 대비 19% 감소했다.

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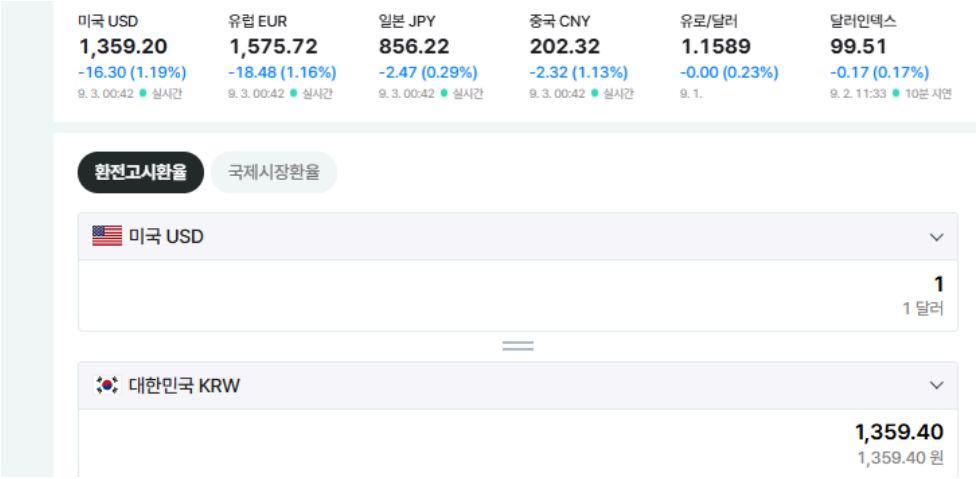
[오늘의 금융 지표: 미 증시 지수, 미 국채, 주요 환율]



US 30	53,052.30	+284.7	+0.54%
US 500	7,676.30	+44.8	+0.59%
Dow Jones	53,058.31	+291.43	+0.55%
S&P 500	7,674.57	+43.03	+0.56%
Nasdaq	26,220.83	+121.05	+0.46%
S&P 500 VIX	15.41	-0.93	-5.69%
Dollar Index	99.498	-0.139	-0.14%

U.S. Treasurys

	COUPON (%)	PRICE CHG	YIELD (%)	YIELD CHG
30-Year Bond	5.125	1/32	5.271	-0.006
10-Year Note	4.625	0/32	4.802	0.005
7-Year Note	4.5	0/32	4.673	-0.005
5-Year Note	4.375	0/32	4.560	-0.004
3-Year Note	4.25	0/32	4.461	-0.008
2-Year Note	4.125	0/32	4.394	-0.016
1-Year Bill	0	0/32	4.172	0.024
6-Month Bill	0	0/32	4.028	-0.006
3-Month Bill	0	0/32	3.869	0.005
1-Month Bill	0	0/32	3.741	0.000



KOCHAM | 445 Park Ave | New York, NY 10022 US

Unsubscribe | Constant Contact Data Notice